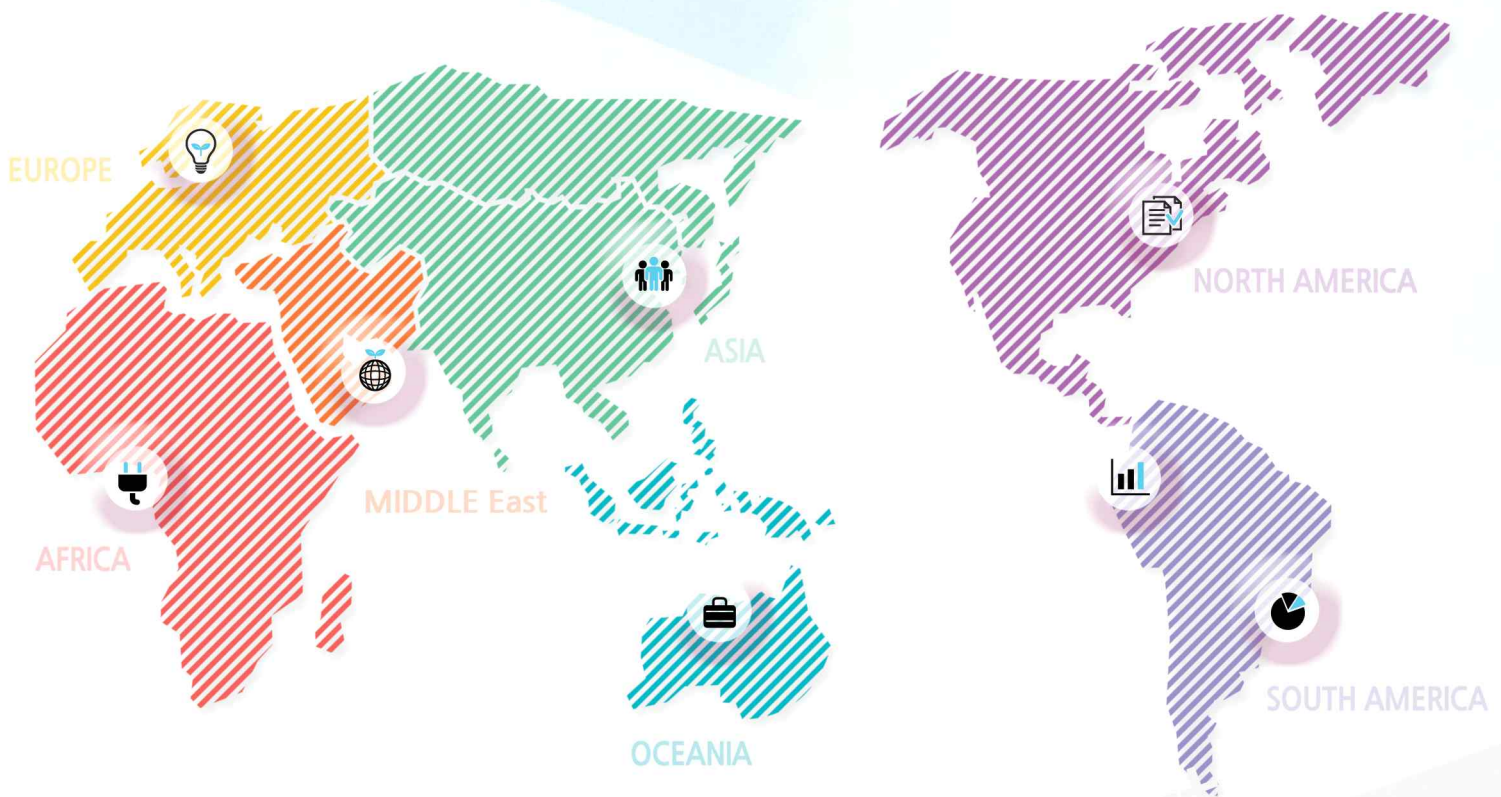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1주년, 對캐나다 수출 성과분석

CONTENTS

목 차

요 약

I.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1
II. 한-캐나다 FTA 발효후 양국 간 교역동향	6
III. 수출유망품목 한-캐나다 FTA 성과분석	17
17 1. 승용차	
20 2. 자동차부품	
23 3. 타이어	
26 4. 편직물	
29 5. 알루미늄 자재	
32 6. 플라스틱 바닥재	
34 7. 화장품	
38 8. 양말류	
41 9. 조명	
44 10. 식품 · 소스	
47 11. 음료	
50 12. 안경	
53 13. 냉장고	
IV. 신규수출 성공사례	55
V. 시사점 및 진출방안	57

요 약

- ‘한-캐나다’ FTA 발효(15.1.1), 2017년까지 캐나다 측 93.2% 관세철폐
 - 승용차,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화장품, 식·음료 등이 대표적 수혜품목
 - 금년(15)은 한국산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제외로, 관세효과 일부상쇄
 - * 관세철폐 외 ‘서비스·투자촉진’, ‘조달완화’, ‘전자상거래확대’ 등 기대
- ‘유가폭락’, ‘환율변동’ 등 캐나다 수입시장 침체 속, 한국산 수출호조
 - 2015.1~10월 간, 캐나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9.2% 급감
 - 캐나다 달러환산 가격폭등(8.8%) 속, 한국산 수출액 소폭(4.8%) 감소
 - * 3분기부터 전년 동기대비 증가추세로 전환, 수입시장 점유율은 증가(0.1%p)
 - 수출 품목 수는 ‘HS코드 6단위’ 기준 1,678개이며, 식품분야 품목증가
 - 수출 기업 수는 대기업·중견기업 감소, 중소기업·개인(기타) 증가
 - * 캐나다 수입시장 한·중·일 경합심화 속, 한국산 (기초)화장품 점유율 큰 폭 증가
- 캐나다 바이어·지상사, ‘한-캐나다 FTA’ 성과·전망에 대해 긍정적 반응
 - 관세철폐(63%), 인지도개선(19%) 등을 수출확대 효과라고 답변
 - 환율변동(37%), 경기침체(33%) 등 FTA 효과부진 주요원인으로 응답
 - * 향후(2016년) FTA 수출효과 전망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 입장
- 수출유망분야(13개), 단계적 FTA 효과발생 전망

분야(HS코드)	관세(철폐)	수출증감('15'14)	시장동향('15)	향후전망('16)
승용차(8703)	6.1%(3년)	0.46%	대형차 판매증가	제한적(NAFTA생산증가)
자동차부품(8708)	6.0%(3년)	-15.78%	캐나다 완성차 생산감소	단계적 증가
타이어(4011)	6.5%(5년)	2.20%	한국산 가격·품질 인정	긍정적 효과지속
편직물(6004)	8.0%(3년)	-2.57%	경쟁국 대비 점유율 증가	단계적 증가
알루미늄소재(7610)	6.5%(5년)	-25.00%	基底(14)효과, GPT영향	단계적 증가
인조바닥재(3918)	6.5%(3년)	6.56%	한국산 점유율 증가	품질·브랜드 가치상승
기초화장품(3304)	6.5%(3년)	48.17%	한국산 점유율 증가	큰폭 성장지속
양말·스타킹(6115)	18.0%(3년)	5.86%	가격효과 수출연결	점진적 증가
조명·LED(9405)	7.0%(5년)	-27.33%	시장위축, GPT영향	경기회복 연동증가
식품·소스(2103)	12.5%(5년)	2.08%	가격·인지도 효과반영	판촉·홍보 효과상승
(기능성)음료(2202)	11.0%(5년)	-6.21%	시장포화, 탐색단계	점진적 증가
안경(9003)	2.5%(즉시)	-3.32%	전년수준 수출유지	점진적 증가
냉장고(8418)	8.0%(3년)	-21.5%	규격변경(EPA), GPT영향	점진적 증가

- 무역수지 균형노력, 인력·기술·산업 협력 다각화·고도화 필요
 - 자원개발, 부품·소재 교역확대 등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형성·유지
 - 미래·유망 산업분야 기술·인력·조달 협력 강화 기대

1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2014년 9월 23일 우리나라의 12번째 FTA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관세 적용시작
- 캐나다는 GDP 1.8조 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대
 -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 상품관세철폐

-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월 1일 부로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목에 대해 특혜관세(Korea Tariff) 적용
 - 즉시철폐와 단계철폐 등 2024년까지 대다수 품목 무관세 예정
 - * 품목 수 기준 97.5%, 금액(캐나다 한국산 수입) 기준 98.7%가 대상
- 품목 수 기준 3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93.2%로 59.3%인 ‘한-미 FTA’에 비해서 높은 수준 시장개방
 - 발효 즉시(2015년) 관세가 철폐된 품목 수는 76.4%
 - * 금년(15) 한국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 품목은 FTA 관세철폐 효과지연
- (수출)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간 철폐되어 ‘15.1.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됨 (‘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
 -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내지 3년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 철폐
 - 냉장고(8%)는 3년 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7%)는 5년철폐되어 ‘19.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한-캐나다 FTA 관세양허 내용 >

양허 유형	한-캐나다 FTA (2015.1.1 발효)				한-미 FTA (2012.3.15 발효)			
	한국 양허		캐나다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 시	81.9	87.0	76.4	64.1	38.1	55.2	58.7	81.5
3 년	4.2	5.3	16.8	31.7	0.4	0.2	0.6	0.1
5 년	6.1	3.8	4.3	2.9	20.7	11.6	22.1	2.1
7 년	0.1	1.6	-	-	4.3	4.4	5.1	14.2
10년	5.1	0.6	0.3	-	23.3	4.7	9.9	2.1
10년 초과	0.8	1.2	-	1.3	12.1	23.0	3.6	-
양허 제외	1.8	0.5	2.2	-	1.1	0.9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동차 및 관련품목, 섬유·의류, 건축자재, 식·음료 등이 주요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며, 대부분 2017년 1.1일부 무관세 적용 예정

< 캐나다 측 관세양허 주요품목 >

(단위: 천 달러)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14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00,311	6.1	27,052,070	3년
8708	자동차부품	450,813	6.0	20,567,127	즉시~3년
4011	타이어	115,072	7.0	3,315,412	5년
6004	편직물	22,191	8.0	67,585	3년
7610	알루미늄 자재*	6,496	6.5	324,550	5년
3918	플라스틱 바닥재*	24,261	6.5	339,036	3년
3304	화장품*	18,060	0.0~6.5	1,314,858	즉시~3년
6115	양말류	10,951	16.0~18.0	277,716	3년
9405	조명(LED)*	4,996	0.0~7.0	1,566,259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034	0.0~12.5	686,136	즉시~5년
2202	음료	5,750	0.0~11.0	850,309	즉시~5년
9003	안경	7,941	0.0~2.5	193,613	즉시
8418	냉장고*	84,236	8.0	1,451,197	3년
소 계		2,855,112	* 수출총액 대비 43.5% 비중 (2014년)		
對 캐나다 수출총계		6,561,354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FTA 협정문 표기(*)는 금년(15) GPT 적용제외 품목포함

< 참고 > 캐나다 수입관세 완화동향

- 최혜국(MFN) > 일반특혜(GPT) > 최저개발(LDCT) > 무역협정(FTA) 관세체계
- 2015년 최혜국 관세율은 공산품 평균 2.16%, 농산품 3.10% 등 낮은 수준이고,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와 교역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등 수입시장 개방확대

구 분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대상	교역비중(14)
발 효	NAFTA(미국·멕시코), 한국, 이스라엘,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EFTA	72.3%
타 결	TPP(11개국), EU(28개국), 온두라스	81.3%

- (수입)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철폐, 쇠고기(40%)는 15년철폐, 맥아(북지않은 것)(269%)는 12년철폐 등 주요 농산물 관세 장기철폐
 -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 철폐되어 '15.1.1일 관세 완전 철폐
 - 아이스와인(15%)은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철폐(냉동이외)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원산지기준

- '완전 생산' 및 '실질적 변형'을 일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세부기준 별도마련

-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호누적을 인정한 '부가가치' 기준적용
- (전자·기계) HS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 기준도입
- (섬유·의류) '세번변경' 기준적용 염색·날염 공정인정 부가적용

- '원산지 자율증명', '특혜관세 사후환급' 등 간소화 및 편의증진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시행('15.11.1), 통관특혜

- (원산지증명) 수출자가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증명서 직접발급
- (특혜관세신청) 수입통관 이후 1년까지 사후환급 신청가능
- (원산지검증) 세관당국이 수출자(선별)에 대해서 서면 또는 방문 조사

□ 서비스, 투자 관련조항

○ 상호 투자, 서비스에 대해서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전문 직종 ‘자격인정’, ‘시장개방’ 등 후속협약 예정
- *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구제제도의 ‘최소’ 합리적 적용규정

□ 무역 구제

(세이프가드)

- *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일 경우에만 적용
- * MFN 관세를 수준까지 최대 4년간 발동

(반덤핑 및 상계관세)

- * 국내산업 피해제거 수준까지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 * ‘약속(Undertakings)’ 제도 등 수출자 보호대안 운영

□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자 대우)

- * 내국인대우(한국), 내주인대우(캐나다) 부여
- * 최혜국대우(항공, 수산, 해운 제외) 부여

(분쟁해결절차)

- * 투자자가 유치국 정부상대 ‘국제중재(ICSID)’ 요청허용
- *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단심 판정

□ 서비스 무역

(일반적 의무)

- *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외, 시장접근보장, 현지주재불요
- * 교육, 의료, 통신, 문화 등 공공분야는 개방유보

(자격인정)

- *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분야 ‘자격 상호인정협정’ 논의추진
- *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단계적 개방추진

【 전문인력 교류여건 개선내용 】

- (한국) 취업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방문(Business Visitor) 입국허가 확대
- (캐나다) 전문직군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생략 등 취업비자 신청간소화

□ 위생조치,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 WTO+, 별도위원회 운영

○ ‘비관세 장벽’ 최소화를 위한 후속협약 추진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의 촉진을 위한 상호노력 합의

□ 위생조치(SPS)

-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부여 하는 회원국 권리·의무 반영
- SPS 주요사안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간 1회 이상 회합)

□ 지적재산권(IP)

- WTO ‘무역관련 지재산권 협정 (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추가 등, IP보호 강화
- 지리표시(이천쌀, 캐나다와인), 청각상표권, 인터넷 저작권 등 보호조치 확대

□ 기술장벽(TBT)

- WTO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 (TBT)’이 부여하는 권리·의무에 기초하여, 협력강화에 주력
-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 전기·전자 등 분야별, 표준관련 위원회 개최

【 FTA 발효 시,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

- 관련규정 : 한-캐나다 FTA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지적재산권)
- 주요내용 : WTO 규정을 기초로, 양국의 국내법령 간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노력을 규정
- 주요쟁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저작권’, ‘특허법’ 등에 의한 권리(지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동 법을 적용치 않음을 규정한 반면, 캐나다 공정거래법(Competition Act) 제32조는 지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지재산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 정부조달 장벽완화

-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국 간 무역기회 확대
 - ‘WTO 정부조달협정(GPA)’보다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개방

<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양허 주요내용 >

구 분	한 · 캐나다 FTA 조달협정	개정(14.4월) GPA
상 품	10만 캐나다 달러이상	13만 SDR (약 25만 캐나다 달러)이상
서비스	10만 캐나다 달러이상	13만 SDR (약 25만 캐나다 달러)이상
건 설	500만 SDR이상	500만 SDR이상

주) 1 SDR = 1.9 CAD (‘15.12.11일 기준)

2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동향

가. 캐나다 수입시장 동향

□ 유가하락,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캐나다 수입시장 위축

- 금년('15년 1월~10월) 캐나다 전체 수입액은 3,542억 달러로 전년('14년) 동기대비 9.2% 감소
- GDP 비중이 높은 에너지산업 경기위축으로 수입수요 전반감소, 금융당국 통화절하 조치로 수입가격 인상 등이 주요 원인
- *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통화 절상의 영향으로 對美 수입액 급감(-10.9%)

< 캐나다 수입시장 변동양상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5년(1~10월)		2014년		2013년	
	수입액(점유율)	증감률	수입액(점유율)	증감률	수입액(점유율)	증감률
미국	188,912(53.3)	-10.9	252,138(54.4)	4.8	240,576(52.1)	2.8
중국	43,188(12.2)	-2.2	53,093(11.5)	3.8	51,150(11.1)	0.8
멕시코	20,354(5.7)	-5.4	26,089(5.6)	0.6	25,940(5.6)	1.5
독일	11,500(3.2)	-6.7	14,466(3.1)	-3.2	14,950(3.2)	4.5
일본	9,800(2.8)	-2.8	12,028(2.6)	-9.8	13,338(2.9)	-11.3
영국	6,270(1.8)	-8.8	8,327(1.8)	1.7	8,187(1.8)	-4.2
한국	5,283(1.5)	-4.8	6,561(1.4)	-8.0	7,128(1.5)	11.8
이태리	4,792(1.4)	-2.0	5,818(1.3)	2.8	5,659(1.2)	8.3
프랑스	4,282(1.2)	-6.1	5,390(1.2)	3.2	5,225(1.1)	4.1
대만	3,613(1.0)	0.7	4,190(0.9)	-8.5	4,579(1.0)	-0.1
총 계	354,194	-9.2	463,679	0.4	461,77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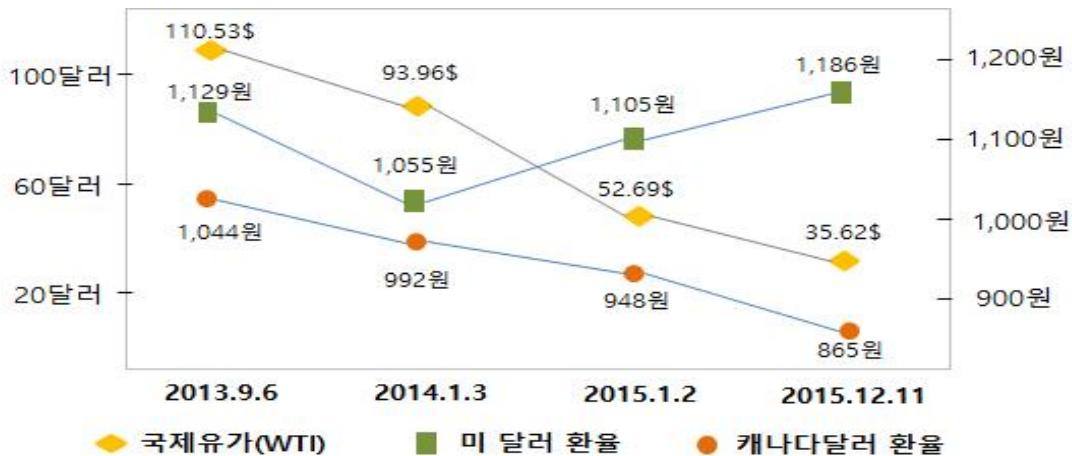
자료 : 캐나다 통계청 * 2015년(1~10월) 수입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 우리나라 對 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4.8% 감소, 점유율 1.5% 기록
- 중국(12.2%)과 일본(2.8%)의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 * 對中위탁가공 증가, 일본 엔화약세 등이 中·日 제품강세의 주요원인

- 캐나다 통화절하가 계속되고, 수입시장 위축현상도 지속될 전망
 - 加 중앙銀, 기준금리 사상최저(0.5%) 유지방침 ('15.12.1 발표)

< 참고 >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추이

- 금년(15) 국제유가(WTI) 32.4% 인하, 캐나다 달러화 8.8% 절하



나. 對 캐나다 한국상품 수출동향

- FTA 발효 첫 해인 금년(1~10월) 對 캐나다 수출은 소폭(4.8%) 감소
 - 캐나다 수입수요 감소와 환율(원화-캐나다달러) 변동에 기인
 - * 캐나다 전체 수입액이 9.17% 감소한 것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며 특히, GPT에서 제외 및 기준세율(MFN적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증가

< 對 캐나다 수·출입 총괄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1~10월)		2014년		2013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 출	5,283	-4.83	6,561	-7.95	7,128	11.83
수 입	2,606	-20.93	3,798	11.92	3,394	-8.71
수 지	2,678		2,763		3,734	

자료: 캐나다 통계청

- 무역수지는 26.8억 달러를 기록, 흑자기조 유지
 - 수출 증가율이 수입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남

< 참고 > 캐나다 GPT 대상국가 제외영향

- 캐나다 관세청(CBSA)은 15.1.1 부 일반특혜관세(GPT) 대상국을 176개에서 104개로 축소
 -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대표적이며, 최혜국(MFN) 적용으로 세율증가
- GPT 제외국가 대부분의 對캐나다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인도의 경우는 증가
 - 냉장고, TV 등 인도에서 조립·생산되는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한 데 기인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1~10월)	증감률
2	중국	51,149,494	53,093,318	43,188,155	-2.16
7	한국	7,127,922	6,561,353	5,283,379	-4.83
13	인도	2,888,686	2,878,468	2,632,752	9.17
15	브라질	3,520,587	3,141,398	2,395,807	-9.53
17	페루	2,987,492	2,742,475	2,105,800	-8.35
25	아르헨티나	1,790,445	1,761,921	1,213,122	-16.82
34	터키	1,280,226	1,276,058	853,043	-17.71

- '15년 3분기에 접어들어, '14년 동기 대비 증가(1.2%) 추세전환
 - FTA 수출증가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됨.

< 對 캐나다 분기별 한국산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1~10월)	5,283	-4.83	2,606	-20.93	2,678
1분기	1,636	-3.09	740	-14.59	895
2분기	1,580	-9.71	884	-22.58	697
3분기	1,588	1.18	778	-22.60	810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우리나라의 對 캐나다 수출품목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식품', '요업', '기타기기' 분야에서 소폭 증가
 - '금속·철강', '운송기기' 부문은 감소추세

< 對 캐나다 수출 품목 수 추이 >

산업(HS코드)	2015년(1~10)	2014년	2013년
농수산물·축산(01~15)	98	102	108
가공식품(16~24)	85	83	82
석유화학(25~40)	253	273	266
가죽·모피(41~43)	25	26	26
목재·펄프(44~49)	58	58	53
섬유·의류(50~67)	269	304	296
요업(68~70)	44	43	41
금속·철강(71~83)	233	257	246
전자·기계(84~85)	396	408	403
운송기기(86~89)	33	35	39
정밀기기(90~93)	109	120	108
기타기기(94~97)	75	71	75
총 계	1,678	1,780	1,743

* 수출 품목 수는 HS코드 6자리 기준, 1,000 달러 이상 기준 집계

- FTA 관세철폐에 따른 '15년 신규 수출품목은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발생

<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신규수출품목 >

(단위: 달러)

HS코드	품목명	수출(1~10월)	관세율(14)	양허
070951	아가리쿠스 버섯	296,840	6%	3년
071010	감자	3,764	6%	3년
200580	스위트콘(캔)	3,750	10.5%	5년
591110	방직용 섬유직물	21,912	8%	3년
600621	메리야스편물(표백하지 않은 것)	2,699	8%	3년
611012	캐시미어 저지, 가디건 등	2,938	18%	3년
620291	여자용 아노락, 스키자켓 등	4,305	18%	3년
620920	유아용 면제 의류	3,207	17%	3년
621020	기타 직물 의류	19,564	18%	3년
860799	철도 차량 부품	113,377	8.5%	5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 캐나다 수출기업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개인(기타) 수는 증가
 - 금년(15) 캐나다로 수출한 중소기업 및 개인(기타)수는 4,411개로 전년(14) 대비 3.6% 증가

< 對 캐나다 수출기업 수 추이 >

구 분	2015년(1~10월)	2014년	2013년
대기업	121	162	179
중견기업	163	303	301
중소기업 및 개인(기타)	4,411	4,256	4,170
총 계	4,695	4,721	4,650

자료: 관세청 *기업 수는 사업자 번호기준 집계

□ 주요품목 韓·中·日 경합양상

○ FTA 수혜품목 중에서 화장품 시장점유율 대폭 증가

- 승용차는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엔화약세로 점유율증가 효과상쇄

* 대다수 품목에서, 한·중·일 경합은 심화되는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코드)	2015년(1~10월) 수입액(비중)				2014년 수입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승용차 (8703)	1,847 (8.15)	9 (0.04)	2,123 (9.36)	22,674 (100)	2,100 (7.76)	51 (0.19)	2,412 (8.92)	27,052 (100)
자동차부품 (8708)	322 (1.95)	1,177 (7.12)	1,020 (6.17)	16,533 (100)	451 (2.19)	1,263 (6.14)	1,300 (6.32)	20,567 (100)
타이어 (4011)	102 (3.74)	410 (15.09)	304 (11.20)	2,716 (100)	115 (3.47)	512 (15.43)	335 (10.10)	3,315 (100)
냉장고 (8418)	54 (4.59)	169 (14.25)	3 (0.23)	1,182 (100)	84 (5.80)	184 (12.70)	4 (0.30)	1,451 (100)
편직물 (6004)	17 (28.37)	18 (30.04)	0.04 (0.07)	59 (100)	21 (31.22)	21 (30.36)	0.08 (0.12)	68 (100)
알루미늄자재 (7610)	4 (1.6)	51 (18.88)	0.3 (0.11)	270 (100)	6 (2.0)	58 (17.97)	0.3 (0.08)	325 (100)
플라스틱바닥재 (3918)	22 (7.96)	130 (46.06)	0.8 (0.27)	282 (100)	24 (7.16)	149 (43.85)	1 (0.31)	339 (100)
화장품 (3304)	20 (1.84)	44 (3.97)	17 (1.52)	1,099 (100)	18 (1.37)	52 (3.99)	17 (1.31)	1,315 (100)
양말류 (6115)	10 (4.38)	130 (55.58)	0.1 (0.06)	235 (100)	11 (3.94)	142 (52.05)	0.2 (0.08)	278 (100)
조명(LED) (9405)	3 (0.23)	687 (51.24)	1 (0.07)	1,341 (100)	5 (0.32)	794 (50.67)	1 (0.09)	1,566 (100)
식품(소스) (2103)	4 (0.59)	11 (1.80)	5 (0.79)	623 (100)	4 (0.59)	14 (1.98)	5 (0.80)	686 (100)
음료 (2202)	5 (0.60)	1 (0.20)	1 (0.17)	755 (100)	6 (0.68)	2 (0.23)	1 (0.14)	850 (100)
안경 (9003)	6 (3.85)	71 (42.13)	7 (4.33)	167 (100)	8 (4.10)	81 (41.92)	8 (4.16)	194 (100)

자료: 캐나다 통계청

- '15년은 FTA 발효후 첫 해로서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아직까지는 산업·제품별 현지수요 변동이 對 캐나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달러 약세로 제3국 수출위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 철강, 기계 등 산업용 중간재·장비류 수출호조

<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출동향 >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	2015년(1~10월)		2014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8703	승용차	1,846,992	0.46	2,100,311	-5.92
2	8708	자동차부품	322,309	-15.78	450,813	5.57
3	8517	휴대전화	308,068	-13.29	395,774	-47.41
4	4011	타이어	101,553	2.20	115,073	12.04
5	8481	밸브	71,678	13.47	80,824	-19.02
6	8483	전동축	66,732	7.09	75,168	0.54
7	2934	정밀화학원료	64,211	191.51	41,011	262.37
8	8413	산업용펌프	64,077	1.43	76,716	56.74
9	7216	철(비합금)형강	59,961	18.64	73,978	106.13
10	7210	평판압연(도금)	58,756	-12.23	75,411	24.23
11	8418	냉장고	54,280	-21.50	84,237	10.40
12	8504	변압기	46,901	-44.72	88,243	53.26
13	7308	철구조물	44,845	65.26	34,303	-67.31
14	8451	섬유기계	40,178	1.33	45,849	-36.01
15	8419	공기조절기	38,981	-36.83	65,846	143.52
16	3903	석유화학제품	33,528	-16.35	45,441	5.72
17	4002	합성고무	27,085	-33.84	45,806	15.01
18	7208	평판압연(비도금)	25,662	-68.71	101,255	62.00
19	4810	인쇄용지	18,462	-12.56	23,805	-8.98
20	7307	철강관	17,686	-37.75	32,763	-1.24
수출총계			5,283,380	-4.83	6,561,354	-7.95

자료: 캐나다 통계청 * 박스 표시는 FTA 관세철폐 품목포함(전부 또는 일부)

다. 對 캐나다 수입동향

- 2015년(1~10월) 對 캐나다 수입액은 전년(14) 동기대비 21% 감소
 -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과 원자재가격 인하가 주요 원인
- 광물, 목재 등 주요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
 - 소가죽(+148%), 갑각류(+77.58%) 제어부품(+387%) 등은 큰 폭 증가
 - * 소고기 수입은 큰 폭(85%) 감소

<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입동향 >

(단위: 천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	2015년(1~10월)		2014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2701	유연탄	479,222	-31.07	762,371	-31.17
2	2603	동광	465,193	-11.98	590,786	191.12
3	2601	철광	162,289	-28.49	253,453	229.24
4	4705	목재 펄프	90,285	-18.81	128,636	-18.70
5	4703	화학목재 펄프	77,763	-11.29	102,439	-3.51
6	4403	원목	73,500	-11.29	102,686	-7.48
7	0203	돼지고기	61,671	-3.60	80,495	19.17
8	4407	제재목	59,021	2.99	66,485	10.11
9	1514	유채유	51,964	9.68	68,923	89.86
10	4101	소가죽	50,058	147.54	29,110	64.23
11	1001	밀	42,229	-70.25	158,691	96.84
12	2608	아연광	40,320	-43.81	71,750	26.80
13	2844	우라늄	37,989	32.89	28,586	-17.38
14	0306	갑각류	35,296	77.58	27,921	35.05
15	8537	제어부품	27,273	386.58	7,319	155.87
16	9031	측정검사기기	26,291	-0.01	33,767	9.58
17	2106	건강식품	25,876	29.79	24,454	-3.09
18	8483	전동축	19,512	-22.84	28,587	75.86
19	8479	기타기계류	10,633	34.24	16,260	27.47
20	3002	의약품	8,704	7.26	9,521	51.83
수입총계			2,605,728	-20.93	3,798,405	11.92

자료: 캐나다 통계청 * 박스 표시는 FTA 관세철폐 품목포함(전부 또는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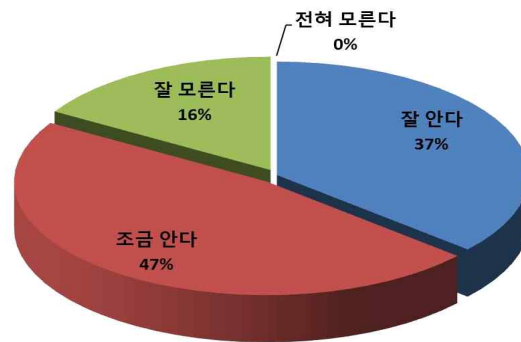
라. 한-캐나다 FTA 성과관련 현지반응

토론토 무역관과 밴쿠버 무역관은 15.12.10.~15 간, FTA 관세철폐 수혜품목 캐나다 바이어(49개)와 지·상사(6개)를 대상으로, ‘한-캐나다 FTA’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FTA가 발효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85%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16%는 잘 모른다고 답변

< 한-캐나다 FTA(발효/내용)에 대한 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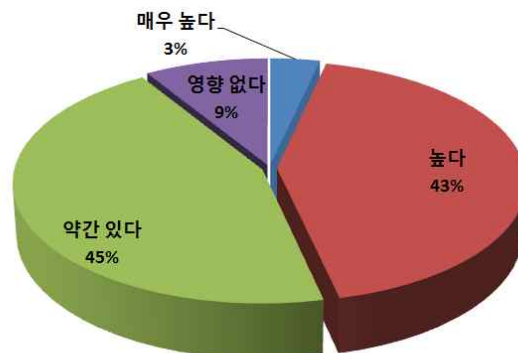
잘 안다	20명
조금 안다	26명
잘 모른다	9명
전혀 모른다	0명



- FTA가 한국산 對 캐나다 수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46% 높다고 응답했으며, 45%는 약간 있다고 답변

< 한-캐나다 FTA 수출확대 효과에 대한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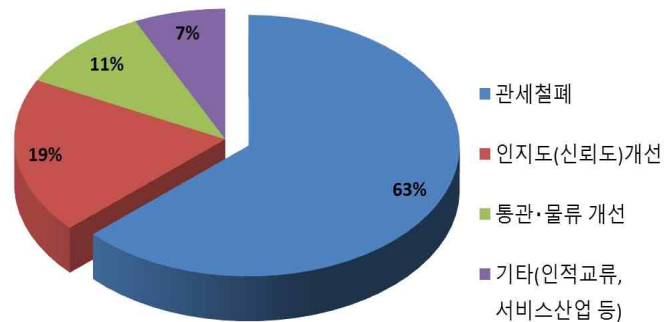
매우 높다	2명
높다	24명
약간 있다	25명
전혀 없다	5명



- FTA가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관세철폐’ 63%, ‘인지도개선’ 19%, ‘통관·물류개선’ 11% 등 답변
 - 기타, ‘인력교류’, ‘서비스교류’ 등으로 답한 비중 7%

< 한-캐나다 FTA 수출증진 효과원인 (복수답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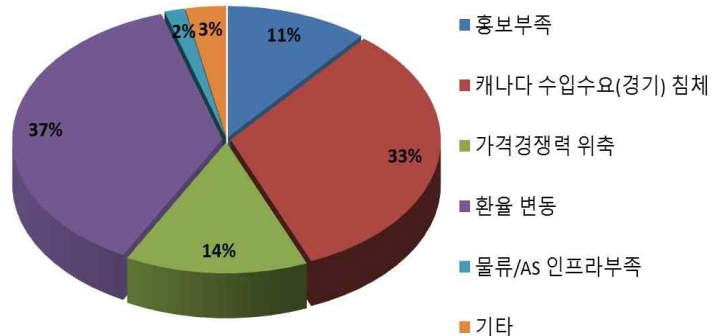
관세철폐	36명
인지도 개선	11명
통관·물류 개선	6명
기타 (인력·서비스교류)	4명



- FTA 효과가 미진·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환율변동’, ‘캐나다 경기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캐나다 FTA 효과가 부진한 이유 (복수답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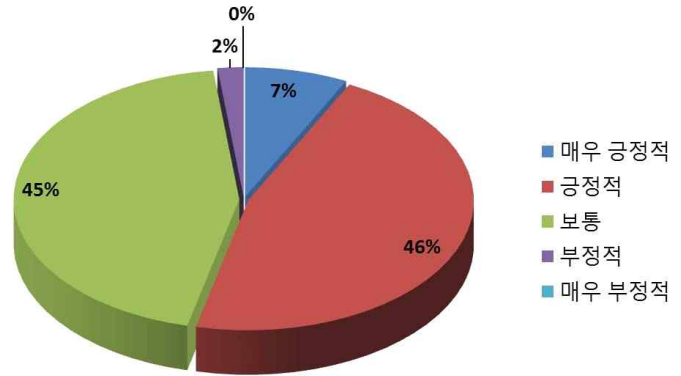
홍보부족	7명
캐나다 수입수요 경기침체	21명
가격경쟁력 위축	9명
환율변동	24명
물류/AS 인프라부족	1명
기타	2명



- 향후(2016년) FTA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45%는 보통이라고 응답

< 한-캐나다 FTA 2016년 수출증대 효과전망 >

매우 긍정적	4명
긍정적	25명
보통수준	24명
부정적	1명
매우 부정적	0명



< 캐나다 정부 및 언론 반응 (인터뷰 결과종합) >

□ 캐나다 외교부, Sue Rauth (Deputy Director, Trade Commissioner Service)

- 캐나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발효에 대해, 발효 이전과 동일한(긍정적) 입장이나,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 없음

□ 온타리오 주정부, Wenbo Pan (Area Director, Int'l Trade Branch)

-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對 한국수출은 부진하여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음

□ Vancouver Sun (밴쿠버 썬), Chuck Chiang (Columnist)

- 본인의 의견으로는 캐나다 사람들은 한-캐 FTA 효과에 대해 아직은 기다리고 관망하는 상황임(wait-and-see attitude). FTA 발효 후 지난 일년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소비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현대와 기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일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농산물 및 해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도는 역사상 최고임
- 대규모 이민을 통해 많은 중국계 커넥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시장 자체의 기회 뿐 아니라 한국을 중국에 가는 출발점(jump-off point)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시작임. 보통 FTA들과 관련된 심한 반대는 없음(보통 FTA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캐나다 신민당(NDP) 조차도 지지함.)

□ Business in Vancouver (비즈니스 인 밴쿠버) Tyler Orton (Reporter)

- 천연자원 분야 수출 및 자동차 부분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한-캐 FTA의 효과가 세부 산업분야에 닿지 않았다고 봄.
- 생명 과학 등 일부 분야는 한국과의 관세철폐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캐나다 현지에서 TPP 가입 이행관련 아직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한-캐 FTA에 관한 크게 회의적인 시각은 없음.
-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한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을 교두보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나라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특히 한국과 중국간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 비즈니스맨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음.

3

수출유망품목 한-캐나다 FTA 성과분석

<선정기준>

- ① '14년 기준 캐나다의 對 세계 수입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수입수요가 큰 품목)
- ② 對 캐나다 수출경쟁력(시장비교우위지수* 활용)
*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 비중과 對세계 수출 비중을 비교하여,
1보다 크면 그 품목은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③ 주요 현지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 인터뷰 결과 종합

1. 승용차(HS Code: 8703)

관세율(2015)	6.1% → 4.0%	관세철폐일정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2013년 22.3억 달러, 2014년 21.3억 달러 기록 (5.92% 감소)		
FTA 기대효과	관세철폐로 최대경쟁국인 일본산 대비 수출여건 개선		

- 한국산 승용차 수출액의 99.62%를 차지하는 HS Code 8703.22, 8703.23, 8703.24는 모두 기존 6.1%의 관세에서 3년간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 적용 예정

< 한국 對 캐나다 승용차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하고 1,500cc 이하	3.71	-23.3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	81.76	-5.1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 초과하는 것	14.25	68.81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27,052,070	전체수입 중 비중 (‘14 기준)	6%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14,826,320	12,402,914	- 0.43
2	멕시코	3,218,807	2,547,022	- 2.94
3	독일	2,763,410	2,263,682	- 3.93
4	일본	2,411,935	2,122,600	3.49
5	한국	2,100,311	1,846,992	0.46
6	영국	575,163	494,123	1.64
7	이탈리아	147,951	246,779	102.68
8	슬로바키아	171,827	156,471	6.30
9	헝가리	100,926	86,865	3.21
10	프랑스	125,413	75,418	- 30.62
기타		610,003	431,447	-
총계		27,052,070	22,674,319	- 0.59
한국산 점유율		7.76	8.15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5년 1월~10월 기준 8%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대비 큰 변동은 없음
 - 캐나다 승용차 시장 연간 판매량은 190만대~200만대(2015년)로 추산되며, 미국산과 일본산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시장확대 측면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 한국 승용차 수출액이 0.46% 소폭 증가한데 비해, 수출대수는 2015년 1월~10월 136,136대로 전년 동기 120,689대에서 12.80% 증가
 - 대형차로 분류되는 3,000cc 이상 68.81%의 성장, 대수로는 1~10월 누계 기준 2014년 6,001대에서 2015년 11,634대로 93.87%의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1월~10월 한국산 승용차의 캐나다 판매량은 현대차 118,511대, 기아차 59,711대 등 총 178,222대로, 전년(14) 동기 대비 각각 120,498대, 62,195대, 총 182,693대에 비해 각각 1.6%, 4.0% 감소했으며, 시장점유율도 2014년 동기 대비 현대차 7.6%, 기아차 3.9%에서 0.3%씩 감소한, 7.3%, 3.6%를 기록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한국산의 경우 3,000cc 이상의 대형차 수입이 급증했는데,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주력 중소형 모델들이 주로 미국의 조지아 및 앨라배마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2016년 예정)되어 NAFTA를 통해 북미에 유통되기 때문에 한국 직수입 차종 및 수량이 많지 않았던 반면, 대형차의 경우 한국산이 주로 수입된 것으로 분석됨
-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픽업트럭 등 북미에서 인기가 많은 대형 차종의 경우 판매가 16.3% 증가한 반면, 중소형 차량의 경우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NAFTA 역내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한-캐나다 FTA'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캐나다 통화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 판매증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

2. 자동차부품(HS Code: 8708)

관세율(2015)	6.0% → 4.0%	관세철폐일정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4억2701만5천 달러에서 '14년 4억5081만3천 달러로 5.57% 증가		
FTA 기대효과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로 수출확대 기대		

- 한국 수출총액의 80.1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부품 항목은 8708.99, 8708.30, 8708.80, 8708.94, 8708.29 등

< 한국 對 캐나다 자동차부품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8708.9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3.59	-29.14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23.45	-15.52
8708.3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13.10	-39.73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1.63	-7.04
8708.29	기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35	0.44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20,567,127	전체수입 중 비중 (‘14 기준)	4%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14,694,573	11,610,971	-5.58
2	멕시코	1,700,144	1,447,955	2.53
3	중국	1,262,773	1,176,676	10.80
4	일본	1,300,057	1,019,890	-7.24
5	한국	450,813	322,308	-15.78
6	독일	302,897	268,871	1.89
7	대만	154,826	145,253	10.04
8	캐나다(재수입)	157,424	132,549	1.10
9	인도	88,785	77,109	2.38
10	이탈리아	74,323	54,384	-13.62
기타		377,961	277,111	-
총계		20,567,127	16,533,083	-4.07
한국산 점유율		2.19%	1.95%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의 승용차 생산량은 2015년 1월~10월 기간 작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1,865,096대(작년 동기 1,983,068대)로 집계되었는데,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FCA, Ford, GM, Honda, Toyota중 Toyota를 제외한 4개사의 생산량이 최대 17.5%까지 줄어들어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은 주로 완성차 제조기업에 모듈을 제공하는 Tier 1 기업에 수출하고 있어, 전체생산량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가시적인 FTA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우나, 관세 철폐 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Litens Automotive Group社는 텐서너(Tensioner) 모듈을 생산하는 Tier 1 기업으로 전 세계 OEM 승용차의 65%에 제품을 공급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현재 총 7개의 한국 협력업체로부터 제품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수요가 매해 약 20%씩 증가해 왔으며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기존 수입처를 통한 추가 조달뿐만 아니라 기타 원부자재 수입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함. 단, 최근 캐나다달러의 가치하락에 의해 캐나다 내 제조업 경쟁력이 예년에 비해 향상되어 해외공급업체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다고 전함
- Multimatic Dynamic Suspensions社는 각종 자동차 서스펜션(Suspension) 및 새시(Chassis) 모듈을 생산하는 캐나다 대표 Tier 1 기업 중 하나로 주력생산품인 대형모듈(무게와 부피가 큰 부품)의 특성상 해외 아웃소싱을 꺼려왔으나, 동사의 새로운 서스펜션 모듈이 기존 철강(Steel) 소재에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면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 구매를 본격화했다고 전함. 단, FTA 등의 외교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여파가 자동차산업의 특성상(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체감효과는 현재까지 미온적이며 본격적인 수혜효과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Spectra Premium Industries社는 각종 자동차 HVAC, 연료, 필터 등의 A/S부품을 공급하는 A/S부품 전문 제조·유통기업인데, 특히 현대·기아 차량에 소요되는 A/S부품은 중국산 OEM(주문제작) 부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이 월등한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캐나다 FTA 발효를 통해 관세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단, 본격적인 관세효과는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3년 후라고 예상함

3. 타이어(HS Code: 4011)

관세율(2015)	6.5~7.0% → 4.0~5.5%	관세철폐일정	즉시~5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1억270만7천 달러에서 '14년 1억1507만2천 달러로 12.04% 증가		
FTA 기대효과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7%관세철폐로 인해 숨통 트일 전망		

○ 한국수출액의 99.84%가 4011.10, 4011.20과 4011.40으로 구성

< 한국 對 캐나다 타이어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4011.10	승용자동차용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82.47	11.07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16.72	-26.81
4011.40	모터사이클용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0.65	14.26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3,315,412	전체수입액 중 비중 (‘14 기준)	1%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1,516,042	1,187,405	-8.47
2	중국	511,713	409,789	-10.53
3	일본	334,753	304,204	3.53
4	한국	115,072	101,552	2.2
5	독일	75,494	69,886	7.36
6	러시아	54,170	58,646	27.57
7	대만	59,100	55,836	8.48
8	태국	52,194	54,506	17.22
9	멕시코	46,303	48,121	19.92
10	프랑스	57,079	42,264	-15.62
기타		493,489	383,512	-
총계		3,315,412	2,715,726	-5.56
한국산 점유율		3.47	3.74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한국산 타이어의 주력인 승용차용(4011.10) 타이어는 작년 동기 대비 11.07% 증가
 - 품질은 월등하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저가 타이어 물량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예년에 비해 중국산이 10.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한국산은 11.07%의 큰 성장세를 보여,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됨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H사는 2015년 4/4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2014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으며, 특히 캐나다의 기후 특성상 타이어 구매가 급상승하는 12월(겨울용 타이어 구매)을 남겨두고 있어 수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A사에 의하면 한국산 타이어의 구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아직 발효 첫해인 점과 추후 추가적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향후 판매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캐나다 최대의 유통업체중 하나인 Canadian Tire社는 한국의 H사에서 출시한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을 2015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선된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및 인지도 개선도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인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함
- 현지진출 우리기업들도 관세효과와 소비자 신뢰향상의 영향으로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 일본, 중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4. 편직물(HS Code: 6004)

□ FTA 발효 기대효과

관세율 ('15 기준)	최대8.0% → 무세~3.0%	관세철폐일정	즉시~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2219만1천 달러에서 '14년 2110만 달러로 -4.92% 감소		
FTA 기대효과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중국·대만산 대비 경쟁력 제고 예상		

- 2014년까지 수입시장점유율 1위(31.22%)였으나, 2015년 1월~10월 근소한 차이로 중국과 대만에 이은 3위를 기록함.
- 상위 3개 국가인 한국, 중국, 대만이 전체 수입시장의 88.3%를 차지하고 있는 삼파전으로, 주요 세부 품목은 6004.10과 6004.90

< 한국 對 캐나다 편직물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질은 함유하지 않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5.73	0.55
6004.90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27	-17.87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67,585	전체수입액 중 비중		0.015%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중국	19,711	17,748	3.18	
2	대만	19,711	17,663	22.14	
3	한국	22,191	16,762	-2.57	
4	미국	4,231	3,380	-12.03	
5	이탈리아	2,141	1,142	-54.35	
6	홍콩	17	661	4175.39	
7	브라질	1,082	272	-29.14	
8	멕시코	340	245	-16.8	
9	터키	325	218	5.45	
10	베트남	109	214	-0.38	
기타		491	775	-	
총계		67,585	59,085	-2.57	
한국산 점유율		31.22	28.37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한국산의 수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 총액의 85.73%를 차지하는 6004.10항목은 전년에 비해 0.55% 증가해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물의 특성상 값싼 중국·대만산 편직물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선전한 모습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M社에 의하면, 한국산 제품은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하지만 여전히 원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캐나다 현지 수요가 중·저가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FTA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 이루어질 추가 관세철폐가 우선이라고 전함
- W社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관세 인하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캐나다 달러의 약세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에 대한 가격부담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액은 감소했다고 전함. 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연내 수입을 계획하였다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2016년 1월 1일 추가 관세인하가 있을 것을 내다보고 수입계획을 미뤘다고 함

* 대표바이어 인터뷰

기업명	Fairdeal Import & Export Ltd	특기사항	서부캐나다 대표 원단 유통업체
매출규모('14)	C\$ 300~500만	품목	원단
담당자	Mr. Akbar Bhandali	직책	대표
한미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한-미 FTA 발효 후 북미에서 한국산 원단이 각광받고 있으며, 다수의 캐나다 바이어가 미국 지사 물류창고를 통해 한국산 원단 유통 중 · 저가의 중국산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아직까지 편물 품목은 품질이 높은 한국산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많은 편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TPP 참가국인 일본산 고기능 원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우려됨 · TPP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 필요		

기업명	Kendor Textiles	특기사항	캐나다 주요 의류용 원단 유통업체
매출규모('14)	C\$ 140만	품목	원단
담당자	Paul King	직책	대표
한미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FTA 발효 후,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현지 바이어가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한국으로의 거래선 변경을 고려 중 · 품질이 중요시 되는 기능성 니트 원단은 한국산 및 유럽산의 선호도가 높음 · 한국산 원단은 급격한 수입 증가보다는 건실한 보합세 전망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소량 오더에도 적극적 대응 필요 · 주력바이어를 발굴하여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		

- 섬유 생산 단가와 가격 경쟁은 점차 치열해 질 것이므로 우리 섬유 기업들은 디자인과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 캐나다, 미국 등 TPP 참가국에 생산 거점을 신설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임
- 현지내 지역별 에이전트 고용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에 효과적
 -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섬유산업 전문 세일즈 에이전트는 약 2,500여명으로 북미 에이전트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5. 알루미늄 자재(HS Code: 7610)

관세율(2015)	6.5% → 5.0%	관세철폐일정	5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354만8천 달러에서 '14년 649만6천 달러로 83.07% 증가		
FTA 기대효과	건설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과 그 부분품은 7610.10과 7610.90으로 구분

< 한국 對 캐나다 알루미늄 자재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7610.10	문·창과 이들의 문지방	84.36	-8.65
7610.90	기타	15.64	-61.84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324,550	전체수입액 중 비중		0.07%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203,822	168,632	-2.13	
2	중국	58,336	50,910	1.94	
3	멕시코	16,228	10,490	-26.22	
4	네덜란드	10,143	9,730	7.76	
5	독일	4,833	5,498	40.47	
6	한국	6,496	4,318	-25.00	
7	베트남	4,815	2,748	-36.42	
8	말레이시아	284	1,624	580.71	
9	영국	1,161	1,586	69.61	
10	태국	203	1,495	924.72	
기타		18,225	12,611	-	
총계		324,550	269,647	-2.46	
한국산 점유율		2.00	1.60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알루미늄 자재 수입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합해 81.42%의 점유율로 시장을 양분한 형태이며, 한국산의 점유율은 2% 미만임
- 7610.10과 7610.90은 모두 앞서 언급된 일반특혜관세(GPT)가 적용되던 품목으로 2015년 1월 1일 對 한국 일반특혜관세가 철폐되면서 GPT 5.0%에서 MFN 6.5%로 올랐어야 하지만, 동시에 발효된 한-캐 FTA를 통해 6.5%에서 5.0%로 인하됨. 즉, 발효 첫해에는 관세효과가 없음
- 한편 주요 세부품목인 7610.10이 8.65%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 총 수출액이 줄어든 큰 요인인데, 이는 '13~'14년 캐나다의 건축시장 호황으로 인해 1년간 무려 87.07%의 성장을 보인데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됨
 - 실제로 2015년 1월~10월 수출총액인 431만 달러는 이미 2013년 총액인 354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향후 추가 관세철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N社에 의하면, 대부분의 물량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은 값이 싼 중국산 제품이었지만 중국산 제품의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인해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끌고루 갖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함
 - 현재까지 느껴지는 관세효과는 없지만 추후 단계철폐 계획에 맞춰 한국산 제품 수입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힘.
- K社의 경우는 5년 단계 철폐 대상인 알루미늄 자재의 경우 시행초년의 관세인하가 없어 아직까진 환율변동(캐나다달러 약세)을 상쇄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평가함

* 대표바이어 인터뷰

기업명	Helton Industries Ltd.	특기사항	서부 캐나다 주요 도매·시공업체
매출규모('14)	C\$25백만	품목	문틀, 창문틀
담당자	Mr. John Oneal	직책	Supply Chain Manager
한캐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현지 대형 빌딩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산 창호 자재 등이 납품되며 인지도가 크게 향상함 · 금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2016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동제품 수요는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CSA인증 보유 여부, ASTM기준 준수여부 · 북미지역 납품 히스토리(History)는 효과적		

기업명	Shodor Industries Ltd.	특기사항	BC주 주요 제조·유통 업체로 서부 캐나다에 5개 매장 보유
매출규모('14)	C\$1백만	품목	문틀 및 부품
담당자	Mr. Richard Waterman	직책	Manager
한캐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한국산 고효율 창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짐 · 현지내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이 알려지며, 신규 거래처로 관심을 보이는 업체 증가추세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캐나다는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으로 수출시 인증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최근 에너지효율, 친환경 소재, 안전기준 강화 등 시장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신제품 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임		

- 창호자재 납품시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을 가진 현지 건설기업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
- 캐나다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단, 품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바이어와 사전 협의 필요
 - 참고로 인터텍(Intertek)을 통한 인증획득도 인정

6. 플라스틱 바닥재(HS Code: 3918)

관세율(2015)	6.5% → 4.0%	관세철폐일정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1958만1천 달러에서 '14년 2426만1천 달러로 24% 증가		
FTA 기대효과	일반특혜관세(GPT) 철폐로 중국산에는 관세율이 기존 3.0%에서 6.5%로 인상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인하돼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강화 예상		

○ 2015년 1월~10월 기준, 중국(46.1%)과 미국(32.0%)이 시장의 78.1%를 차지하며 양분한 형세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는 3918.10과 3918.90으로 구분

< 한국 對 캐나다 플라스틱 바닥재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9.46	6.18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54	198.58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339,036	전체수입중 비중	0.07%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중국	148,661	129,721	1.86
2	미국	121,893	90,020	-15.11
3	한국	24,261	22,410	6.56
4	프랑스	9,862	8,702	3.17
5	벨기에	6,811	5,917	3.34
6	영국	6,511	5,655	-0.97
7	스웨덴	7,986	5,286	-25.56
8	독일	3,253	3,812	24.55
9	네덜란드	1,634	2,171	41.87
10	대만	2,221	2,031	4.68
기타		5,938	5,920	-
총계		339,036	281,649	-3.96
한국산 점유율		7.16	7.96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한국산이 주요수입국가중 가장 높은 6.56%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점유율도 약 8%까지 오른 모습
- 3918.10과 3918.90의 기존 일반특혜관세(GPT)는 3.0%였는데, 2015년 1월 1일 對일 한국반특혜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최혜국관세(MFN)인 6.5%가 부가되어야 하나, 동시에 발효된 한-캐 FTA를 통해 발효 초년 4.0%의 관세가 부가되고 있음. 발효 2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의 관세가 적용되며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C社는 바닥재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이며, 가격 경쟁력과 함께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결정요소라고 전함
 - 한국산 제품은 디자인이 좋은 편이고, 한-캐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돼 가격경쟁력까지 갖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
- Z社 역시 유럽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캐나다 바닥재 시장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점유율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꾸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전함

7. 화장품(HS Code: 3304)

관세율(2015)	무세 ~6.5% → 무세 ~4.0%	관세철폐 일정	즉시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889만5천 달러에서 '14년 1,806만 달러로 103% 증가		
FTA 기대효과	2016년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은 2.1%이며, 2017년부터 무관세		

- 한국 수출총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부품목의 HS Code는 3304.99, 3304.20 등

< 한국 對 캐나다 화장품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3304.99	스킨케어 제품류	67.74	59.41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24.36	74.98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한국산 화장품은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3년철폐품목에 해당하는 마스크팩(HS Code 3304.99.90)은 현재 4.3%, **2017년부터는 무관세 적용예정**
- 화장품 또한 한국이 GPT 대상국이었을 당시 관세율이 3%에 불과했으나, MFN으로 재편성되며 관세율이 6.5%로 증가함과 동시에 한-캐 FTA 관세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져 현재 관세율 4%가 적용되고 있음. 즉 작년보다 1%가 늘어난 상황
- 일시적으로 GPT 관세율보다 높아져 2015년에는 관세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나, 기타 MFN을 적용받는 국가들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으므로 프랑스 및 영국, 중국, 독일 등의 경쟁국에 비해 가격 우위를 확보했으며, 추후 추가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며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1,314,858	전체수입액 중 비중		0.28%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800,634	654,811	0.21	
2	프랑스	158,490	133,696	2.74	
3	이탈리아	72,139	63,176	2.70	
4	독일	55,752	47,240	2.26	
5	중국	52,412	43,565	3.09	
6	영국	35,683	25,365	-12.17	
7	한국	18,060	20,245	48.17	
8	캐나다(재수입)	15,979	17,591	41.04	
9	일본	17,217	16,691	13.41	
10	벨기에	15,539	16,300	24.73	
기타		72,953	60,187	-	
총계		1,314,858	1,098,867	2.27	
한국산 점유율		1.3	1.8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화장품 시장의 수입 규모는 2014년 기준 13억 1,486만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2%의 성장률을 기록함
 - 주요 수입국가로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소재한 국가임
- 2014년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규모는 1,806만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48%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5년(1~10월) 기준, 한국산 화장품은 약 2,025만 달러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48.2% 증가
 - 한국 수출총액의 92%는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부문과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등 아이 메이크업 부문이 차지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화장품 제조업체인 C社は 2015년 캐나다 최대 화장품 전문매장인 Sephora社 입점에 성공

- Sephora社は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음
 - Sephora社の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15년 관세율은 전년도 GPT 관세율보다는 소폭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떨어졌으나, ‘16년부터 GPT는 물론 MFN 대상국들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실제로 현재 Sephora社에 입점한 대표적인 한국산 브랜드로는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보쉬아, 닥터자르트, 웬, 터치인술, 빌리프, 조성아 22 등
- 중저가化妆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D社는 2013년 화교계 유통업체인 T&T Supermarket社の ‘Be Beauty’매장에 입점에 성공함
- 한국산 제품을 온라인 해외직구 또는 한국에서만 구매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현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구매촉진 요소로 작용하여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 금년 상반기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캐나다 달러 약세 및 2016년도 관세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이 보류되면서 예년에 비하여 수입이 소폭 감소
- T&T Supermarket 뷰티사업부문 바이어에 따르면 중국계 및 아시아계 고객들이 한국 중저가 브랜드 化妆품을 찾는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도에도 한국산 브랜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
- 2016년에는 化妆품에 대한 관세가 최고 2.1%로 하락하여 한국산 化妆품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미용전문 유통업체 바이어 K社에 따르면, 한-개 FTA 발효 이후 한국산 化妆품을 비롯한 미용제품을 3년내 관세 철폐 스케줄에 발맞춰 확대할 계획을 밝힘
- 작년부터 BB크림 등 특정 제품을 소량 수입해서 유통 중이나 관세 특혜로 가격경쟁력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제품 마케팅도 가능할 것으로 한국산 化妆품에 대한 기대 표명

* 대표바이어 인터뷰

기업명	Kingdom Beauty Supplies	특기사항	서부 캐나다 가장 큰 규모 화장품 유통업체로 캐나다 전역 1만여 곳에 제품을 공급
매출규모('14)	C\$3백만	품목	화장품, 스파용품, 헤어케어 용품
담당자	Mr. Randy Chan	직책	대표
한-캐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한-캐 FTA 발효이후 한국산 화장품에 부과되던 3%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상승하며 수입규모가 확대됨 · 특히 효과가 좋기로 알려진 마스크팩, 마스크라, 쿠션 컴팩트, 다크스팟 코렉터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스킨케어 부문은 해외 브랜드 대비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있음. 립스틱과 아이세도 등 색조 화장품은 북미 또는 유럽 브랜드 선호도가 아직까지 높은 편이나, 스킨케어 부문에서는 아시아 제품의 수요도 증가 추세 · 현지인들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주요 소비계층을 아시아계만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현지인 전체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임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 브랜드 화장품은 별다른 홍보효과 없이도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으나 중견·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히트상품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현지 미용시장은 경쟁이 심한 편으로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
- 다수의 현지 바이어가 2016년 개최 예정인 '국제뷰티엑스포코리아' 화장품 전시회에 관심을 보임. 동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

8. 양말류(HS Code: 6115)

관세율(2015)	16.0~18.0% → 10.5~12.0%	관세철폐일정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1천34만 달러에서 '14년 1천95만 달러로 5.7% 상승		
FTA 기대효과	단계적 관세철폐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		

- 한국 수출총액의 9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부품목의 HS Code는 6115.95, 6115.96 등

< 한국 對 캐나다 양말류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6115.95	면제의 것	78.10	8.74
6115.96	합성섬유제의 것	15.02	-3.63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양말류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16~18%로 높은 편인데,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5~12%로 다소 낮아졌고, 3년의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가 될 예정
- 일례로 한국의 수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제의 양말류(HS Code 6115.95)의 경우, 현재 10.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5%의 관세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며, 2017년도부터는 무관세가 부과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277,716	전체수입액 중 비중		0.06%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중국	141,781	130,416	7.87	
2	미국	41,781	33,465	-39.4	
3	파키스탄	23,567	11,681	-5.31	
4	멕시코	23,567	11,158	-38.15	
5	한국	10,951	10,271	5.86	
6	이탈리아	7,954	6,369	-5.27	
7	대만	3,993	3,654	10.43	
8	인도네시아	3,021	3,366	15.90	
9	독일	4,099	2,839	-11.61	
10	캄보디아	4,130	2,822	-12.04	
기타		12,872	18,624	-	
총계		277,716	234,665	1.02	
한국산 점유율		3.94	4.38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2014년 기준 캐나다 양말 수입시장 규모는 2억 7,772만 달러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및 미국, 파키스탄, 멕시코, 한국 등임.
- 2014년 기준 한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약 1,095만 달러로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1~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한 1,027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형성함.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한국의 스타킹 제조업체인 K社는 2015년도 KOTRA가 주관한 무역 사절단에 참가하여 캐나다 양말 및 스타킹 제조업체인 Maple Hosiery Mills Ltd.社와 계약 체결

- Maple Hosiery Mills Ltd.社는 현재 캐나다 동부 소매업체에 양말 및 스타킹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임
 - 기존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모든 제품을 캐나다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였지만, 캐나다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완제품 수입도 진행하고 있음
 - 품질 면에서 우수하면서도 한-캐 FTA 영향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여 K社와 계약체결
- 다수의 한국산 스타킹 제조업체와 거래중인 Wertex Hosiery社의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관세가 최고 18%에서 12%로 감소되면서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전함
- 캐나다 스타킹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에 애로를 겪음
 - FTA 체결로 인해 3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가 예상됨
- Wertex Hosiery社의 구매담당자는 양말과 스타킹의 경우, FTA에 따른 관세효과와 함께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보강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함
-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 제품 순수입국으로, 인건비가 높아 원사 또는 직물을 수입해 가공 및 제조하기 보다는 완제품을 주로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서 수입

9. 조명(HS Code: 9405)

관세율(2015)	무세~7% → 무세~5.5%	관세철폐일정	즉시~5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256만 달러에서 '14년 500만 달러로 95.2% 상승		
FTA 기대효과	관세철폐를 통해 여타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확보		

- 한국 수출총액의 91.7%를 차지하는 세부품목(HS Code 9405.40, 9405.10, 9405.60)들은 모두 기존 0.0~7.0%의 관세에서 즉시 또는 5년의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가 될 예정

< 한국 對 캐나다 조명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	66.44	7.58
9405.10	상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15.89	-18.69
9405.60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9.41	71.71

자료: 캐나다 통계청

- 2015년 캐나다 관세청의 GPT 대상국 재편성 시기와 FTA 발효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관세가 2014년도 대비 높아짐
 - 그러나 KRT(Korea Tariff)는 기타 경쟁국에 적용되는 MFN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고, 양허 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관세 인하로 향후 관세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1,566,259	전체수입액 중 비중		0.34%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중국	793,609	687,371	1.26	
2	미국	487,089	396,463	-0.75	
3	멕시코	170,563	160,343	18.04	
4	독일	18,905	16,486	2.77	
5	이탈리아	20,507	15,055	-12.16	
6	대만	13,411	10,646	-5.39	
7	네덜란드	5,002	10,517	147.70	
8	인도	11,000	9,128	-1.32	
9	한국	4,996	3,142	-27.33	
10	필리핀	3,251	2,586	-5.64	
기타		37,926	29,686	-	
총계		1,566,259	1,341,423	2.29	
한국산 점유율		0.32	0.23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조명 수입시장은 2014년 기준 총 15억 6,626만 달러 규모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50.6%에 해당하는 7억 9,361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4억 8,709만 달러 (31.1%), 멕시코로부터 1억 7,056만 달러(10.9%)가 수입됨
 - 한국의 경우 수입국가 중 9번째로 많은 액수인 500만 달러(전체 수입의 0.32%)가 수입됨
- 2015년(1~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모는 31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3%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전년대비 95% 대로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내 건축 시장은 캐나다 경기의 흐름과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2015 년도에는 캐나다가 저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인해 내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각종 건축 관련 산업의 신규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 바 있음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현지 LED 수입업체인 Banvil 2000社의 바이어는 한국 LED 제조업체 3개사와 지난 3년간 거래를 유지하고 있음
 - 수입량은 고객 수요에 따라 매 분기 다르지만 2015년 3분기 기준 지난 분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계절적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 침체라고 언급
 - 하지만 세부 품목으로 보았을 때, 한국산 일반 전기램프와 조명 기구에 대한 수요는 매년 늘고 있어 캐나다 경기가 살아나면 건축 산업의 침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한국산 조명에 대한 관세가 무관세로 적용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나, FTA가 발효한지 1년도 안된 현재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
 - Banvil 2000社의 바이어는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국 조명 제조업체들이 FTA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의 인증(CUL 또는 DLC) 취득이 필요하다고 함
 - 참고로 DLC(Design Lights Consortium) 또는 Energy Star는 제품의 성능 규격으로서 필수 인증은 아니나,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수의 수입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길 희망함
 - 캐나다 조명 수입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타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편

10. 식품·소스(HS Code: 2103)

관세율(2015)	무세 ~ 12.5% → 무세 ~ 10.0%	관세철폐 일정	즉시 ~ 5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6억299만 달러에서 '14년 6억8613만 달러로 13.8% 증가		
FTA 기대 효과	고추장·된장(HS Code 2103.90)은 단계적으로 5년 내 관세철폐 예정		

- 한국 수출총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부품목의 HS Code는 2103.90, 2103.10 등

< 한국 對 캐나다 식품·소스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103.90	기타 소스류	78.85	2.33
2103.10	간장	20.44	11.75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최대 12.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소스제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은 FTA 수혜로 5년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686,136	전체수입액 중 비중		0.15%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584,240	544,859	10.11	
2	중국	13,592	11,219	13.21	
3	태국	10,829	8,701	-1.79	
4	프랑스	10,877	8,325	-1.92	
5	영국	15,799	7,540	-13.33	
6	이탈리아	6,413	6,122	-41.18	
7	일본	5,469	4,905	16.76	
8	필리핀	4,977	4,605	12.91	
9	멕시코	4,890	3,924	9.26	
10	한국	4,034	3,691	2.08	
기타		25,016	19,555	-	
총계		686,136	623,446	10.11	
한국산 점유율		0.59	0.59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의 소스 제품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6억 8,614만 달러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중국, 태국, 프랑스, 영국 순
- 2015년 3분기(1~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약 369만 1천 달러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시장의 10위를 차지함.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2014년 한국의 S社は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사업에 참가하여 캐나다 최대 화교계 소매유통 업체인 T&T Supermarket과 총 8만 달러 규모의 거래에 성공함
- 중국산 소스가 저가에 대량 수입되는 상황인 것을 인지한 S社は 현지 업체인 T&T Supermarket과 자사 브랜드(PL, Private Label)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에서 탈피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구매량에 대한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Loblaws, Sobeys 등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미팅으로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 성약이 기대됨
- 여타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은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실제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4년 첫 선적 시, 고추장·된장(HS Code 2103.90)에 대한 기존 관세는 9.5%이었으나,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관세가 7.5%로 감소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5.7%로 감소될 예정

* 대표바이어 인터뷰

기업명	Olympic Distributors	특기사항	캐나다 아시아 식료품 수입 도매업체
매출규모('14)	C\$ 1,000만	품목	식료품
담당자	Mr. Jonny Lai	직책	구매 담당자
한개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불고기, BBQ, 떡볶이 소스 등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과거 한식 조리엔 주로 사용되던 한국산 소스류는 최근 다양한 세계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소스로 알려짐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식품을 수입할 때는 품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함. 현지 대형 유통망은 매년 품질관리 평가를 해 기준 미달시 주문량을 줄이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기업명	Central Boeki Canada Ltd.	특기사항	수입식료품 전문 유통업체
매출규모('14)	C\$ 400만	품목	식료품
담당자	Angela Chee	직책	구매 담당자
한개 FTA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반응	• FTA 발효 이후 다수의 한국산 소스류가 자체브랜드(Private Label) 제품으로 수출되고 있음 •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양념치킨 소스 등 한국산 소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 • 2014년 관세인하(9.5%→6%) 혜택으로 소스 구매량이 증가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한국 소스가 고가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나쁘지 않은편 • 아시아계 소비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현지 주류 입맛에 맞는 맛 개발이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11. 음료(HS Code: 2202)

관세율(2015)	무세 ~ 11% → 무세 ~ 8.5%	관세철폐 일정	즉시 ~ 5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5백93만2천 달러에서 '14년 5백75만 달러로 3% 감소		
FTA 기대효과	2016년에는 세부품목에 따라 관세가 즉시~6.6%로 낮아질 전망		

- 한국 수출총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부품목의 HS Code는 2202.90, 2202.10 등

< 한국 對 캐나다 음료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202.90	기타 음료	89.92	-4.74
2202.10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	10.08	-17.53

자료: 캐나다 통계청

- '15년 음료수에 대한 관세율은 0~11%인데, 한국산 제품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850,309	전체수입액 중 비중		0.18%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685,767	622,418	6.36	
2	스위스	64,928	51,353	-16.64	
3	이탈리아	19,596	16,004	-7.26	
4	태국	16,653	12,920	-10.73	
5	프랑스	14,515	10,821	-14.20	
6	독일	6,095	4,906	-8.51	
7	한국	5,750	4,553	-6.21	
8	대만	4,059	3,708	-1.44	
9	필리핀	4,288	3,639	-4.32	
10	홍콩	3,342	3,120	7.55	
기타		25,316	21,448	-	
총계		850,309	754,890	2.94	
한국산 점유율		0.68	0.60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2014년 캐나다 기능성 음료 수입시장의 규모는 약 8억 5,031만 달러 (시장점유율 81%)로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이탈리아, 태국, 프랑스 순
- 2015년(1~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약 455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21% 감소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알로에 음료를 제조 및 수출하는 O社は 2015년 9월 식료품 박람회 (GIC)에 참가하여 현지 화교계 소매유통업체인 Kam Wah Resources社와 미팅을 진행했고 이는 수출로 직결됨
- 이외에도 O社は 박람회에서 다수의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는 점, 동사의 제품이 경쟁사와는 다른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며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형성함

- 경쟁국들이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체들은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여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쌓음
- 식품 업계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업체들이 대형 유통망에 진입하기 어려워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인마켓과 아시아계 마켓을 공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함
- 알로에 주스(HS Code 2202.90.90)의 경우, 한-캐 FTA가 발효되면서 2016년부터 관세가 기존 11%에서 2.3%로 인하될 전망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인증(HACCP) 취득 여부 등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므로 유의 필요

12. 안경(HS Code: 9003)

관세율(2015)	무세 ~2.5% → 무세	관세철폐일정	즉시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1억 9562만 9천 달러에서 ‘14년 1억 9361만 3천 달러로 1% 소폭 감소		
FTA 기대효과	안경은 FTA 발효 시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한국 수출총액의 99.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부품목의 HS Code는 9003.19, 9003.11 등

< 한국 對 캐나다 안경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테	88.66	1.55
9003.11	플라스틱 안경테	9.92	-28.55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의 수입산 안경 제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0~2.5%로 낮은 편에 속하나, 한-캐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에는 특혜관세율(KRT)이 적용되어 **2015년부터 관세율이 즉시 철폐**됨
- 현재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은 KRT 관세율보다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193,613	전체수입액 중 비중		0.04%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10)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중국	81,166	70,555	2.66	
2	이탈리아	62,456	58,010	8.16	
3	프랑스	15,017	10,269	-16.68	
4	일본	8,050	7,255	7.47	
5	한국	7,941	6,440	-3.32	
6	미국	6,393	4,458	-20.04	
7	호주	4,079	3,074	-13.64	
8	스페인	2,067	1,916	11.90	
9	독일	1,740	1,882	25.00	
10	대만	1,026	837	-7.49	
기타		3,678	2,786	7.64	
총계		193,613	167,482	1.93	
한국산 점유율		4.10	3.85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안경 수입시장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유럽 국가

- 2014년 기준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42%를 차지하면서 현재 캐나다 안경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로 이탈리아 및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국가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안경테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한국의 C社は 2014년부터 캐나다 안경 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Fashion Excellent社와 거래 성약에 대해 협의 중

- 동 바이어는 안경테, 렌즈 및 각종 광학 전문기기를 취급하는 유통 업체이며, 주로 미국산 안경테를 취급하다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안경테를 수입하기 시작함
- 상기 바이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를 기회로 포착하여 더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수입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경 및 렌즈 전문 유통업체인 Centennial Optical Ltd.社는 현재 한국의 안경 렌즈 제조업체 3개사와 안경테 제조업체 3개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FTA 체결로 인해 2.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안경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일부 상승했고, 앞으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입량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중국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제조업체들도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한국업체와 거래를 해도 원산지는 중국이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움
- 현지 유통업체인 Fashion Excellent社의 바이어에 따르면 안경테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무관세이거나 낮았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구매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체감하기 어려움
 - 단, 한-캐나다 FTA를 통해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6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캐나다 안경 시장은 소수 유명 브랜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인지도가 다소 낮은 우리 기업들은 기술, 디자인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유효
 - 대부분의 아시아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저가 제품에 해당하는데, 중국에 비해 한국산 제품은 특수 소재로 제조한 안경테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어가 증가하고 있음
 - 감각적인 디자인과 소재,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안경을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하는 캐나다 젊은층 소비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트렌드를 예측하는 노력이 요구됨

13. 냉장고(HS Code: 8418)

관세율 (2015)	8.0% → 5.0%	관세철폐일정	3년
FTA 발효이전 對加 수출동향	'13년 7629만 9천 달러에서 '14년 8423만 6천 달러로 10.40% 증가		
FTA 기대효과	일반특혜관세(GPT) 철폐로 중국산에는 관세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인상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발효 초년 기준 5.0%를 유지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유지 예상		

< 한국 對 캐나다 냉장고 수출 세부품목 비중(2015.1~10.) > (단위: %)

HS Code(6자리)	세부품목	2015년(1~10월)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8418.69	기타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73.97	61.81
8418.10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냉동고	18.20	-73.91
8418.99	기타	4.33	-30.21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캐나다수입시장규모 ('14 기준)		1,451,197	전체수입 중 비중	0.31%
순위	국가명	수입액 '14	수입액 '15 (1월-10월)	동기 대비 증감률 '15/'14
1	미국	814,660	648,481	-6.44
2	멕시코	269,220	222,781	2.24
3	중국	184,273	168,536	9.93
4	한국	84,236	54,280	-21.5
5	터키	22,694	23,153	20.32
6	이탈리아	19,836	15,837	-4.57
7	태국	11,822	11,742	19.34
8	독일	9,775	10,443	53.92
9	오스트리아	8,069	3,914	-41.19
10	네덜란드	598	2,809	525.87
기타		21,017	20,377	-
총계		1,451,197	1,182,359	-2.77
한국산 점유율		5.80	4.59	-

자료: 캐나다 통계청

- 2015년 1월~10월 기준, 미국(54.85%), 멕시코(18.84%), 중국(14.25%)이 시장의 87.94%를 차지하며 삼분한 형세
 - 한국산이 주요수입 국가중 가장 큰 21.50%의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점유율도 약 4.59%까지 떨어진 모습
- 2015년 1월 1일 철폐된 일반특혜관세의 영향으로 한-캐 FTA 발효 1년차 관세인하 효과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산 수출의 73.97%를 차지하는 8418.69(상업용)는 8418.69.20을 제외한 8418.69.90의 모든 세부품목이 무관세 품목이었음
 - 수출의 18.20%를 차지하는 8418.10품목의 경우 8418.10.10.을 제외한 8418.10.90의 모든 세부품목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반특혜관세 5.0%가 적용됐었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 철폐가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로 8.0%(MFN)가 적용되었어야 하나 이와 동시에 발효된 한-캐 FTA로 인해 다시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즉 두 번째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지는 2016년 1월 1일까지 관세효과가 없음

□ 진출기업 및 바이어 반응

-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년에는 FTA 관세인하 효과가 없었고, 환율변동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 2014.9월 적용된 '에너지효율등급(美EPA기준)' 변경에 따라서, 올해는 표기·규격 변경 부담이 가중되어 마케팅 활동 지체
- 내년부터 FTA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약세 추세전환과 현지 소비자 구매력(경기) 회복 등도 판매증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4

신규수출 성공사례

가. 지산어패럴社 (의류)

- 기능성 의류 수출업체 지산어패럴社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수입 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특히, 캐나다 기능성 의류 시장은 높은 인지도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산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
- 바이어들은 지산어패럴社의 샘플 제품에 품질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나 관세까지 더해진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피드백에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방법을 모색 중이었음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조정이 가능해진 지산어패럴社는 기능성 의류 전문 유통업체, Q사를 재접촉 하였음. 바이어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오고 있었으나 품질문제로 인해 대책방안을 강구하던 차였음
- 코트라는 바로 상담을 주선하여 가격대비 차별화된 고기능성 발열 조끼에 대한 설득을 시작하였고 바이어는 샘플 테스트 후, 만족을 표시하며 관세가 낮아지는 2016년도에 샘플오더를 진행하기로 함. 또한, 관세가 철폐되는 3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오더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밝힘
- 이미 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과 중국의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여 높은 장벽에 신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발효된 한-캐 FTA체결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공적인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됨

나. 에버굿社 (청과물)

- 청과물 전문 수출업체, 에버굿社는 캐나다 주요 유통업체들을 통해 이미 밤, 배, 단감 등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수출입 규정에 따른 제한적인 제품군 때문에 수출거래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음
- 특히, 신고배의 경우 중국산이 한국산에 대비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높아 현지 시장 점유율이 점차 독보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로 에버굿社는 신고배를 대안할 새로운 제품을 모색 중이었음.
-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캐나다의 한국산 딸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 한국산 딸기는 북미에 유통되는 딸기에 비해 크기와 당도가 월등히 높아 차별성을 두고 있다 판단한 코트라는 캐나다 식품검역청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바로 문의하여 딸기 수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함
- 에버굿社와 오랫동안 거래 중인 바이어 V사와의 미팅을 통해 관련 수입절차를 안내하고 캐나다에 처음으로 한국산 딸기를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피력하여 구매를 유도함.
- 밴쿠버 무역관의 적극적인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통해 바이어가 필요한 수입허가등록증 (Plant Protection Import Permit) 및 업체 등록 라이선스 (CFIA Fresh Fruit and Vegetable License Number or DRC membership Number)를 단시간에 취득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내에 캐나다 대형체인매장에 한국산 딸기 유통에 성공
- 바이어의 까다로운 제품선정 및 패키징 등에 대한 주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신속하게 보낸 것이 에버굿社의 성공비결

5

시사점 및 진출방안

□ 진출여건 악화 속, '캐나다 수출확대' 버팀목·디딤돌 역할

- 유가하락, 환율변동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캐나다 FTA' 관세 및 비관세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 금년('15년) 하반기 들어 분기별 수출액이 전년('14년) 동기 대비 증가
 - * 기준세율변경(GPT→MFN)에 따라, FTA 관세효과 일부희석
- 상호 보완적인 양국 산업 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산품 위주 한국산 제품의 가격·신뢰 경쟁력 제고로, '지속가능 수출효과' 예상
 -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건축자재 등 중간재 수출확대 기대
 - * 특히,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미용, 식품 등 생활소비재가 수혜품목

□ 캐나다 바이어·소비자, 한국산 수입·구매 관심증가

- 한국산 수출품 대부분(93.2%)의 관세가 2017년 철폐될 예정이어서, 캐나다 수입·유통업체의 신규취급 관심·검토 증가
 - 관세인하가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 수출증가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
- 환율안정(캐나다 달러 강세전환)시, 한국산 가격경쟁력 증폭기대
 - 향후 중국산 가격인상에 따라, 대체수요 흡수가능
 - *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 'K-Beauty 돌풍' 현상발생, 소매·유통 저변확대

□ 캐나다産 축산·수산물, 기계·부품 수입비용 감소

- 광물 등 천연자원 비중이 높은 특성상, 캐나다 수입증가 효과미미
 -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새우, 가재 등 갑각류 수입가격 절감
- 양국 간 무역수지 균형과 상호 보완적 교역관계 형성·유지 필요
 - 자원개발, 부품·소재 수입선 다변화 등 바람직

□ FTA 발효계기, 양국 기업·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 양국 기업 간, 단체·협회 구성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산
 - 한인 무역·실업인, 對韓 수·출입 활동 촉진
 - * ‘한-캐나다 기업협의회(CKBC)’ 출범, ‘한-캐나다 기업인의 날’ 개최 등 대표적
- 對 캐나다 수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증가
 - 통관·물류 환경 개선과 맞물려, 수출저변 및 품목다변화 가능
 - * 금년(15)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수출비중 증가

□ 물류개선, 조달참여 등 FTA 효과제고 노력필요

- ‘온·오프’ 판촉·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가격효과 수출 직결노력
 - ‘온라인 直販’ 모델마련, 중소기업 물류보조 등 지원 필요
 - * 캐나다 ‘유통관행(Standard)’에 부합하는 수출마케팅 지속 추진
- 향후 확대될 전망인, ‘정부조달’ 시장진출 노력 강화
 - 친환경·에너지효율 제품 등 유망품목, 조달경로 확보·협력

□ 산업 내 협력강화, 인력·투자 교류확대

- 자동차, 항공, 에너지 등 양국 핵심사업내 협력 다각화
 - 북미시장 밸류체인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제조유통 강화
 - * 미국 등 북미시장 수출비중이 높은 캐나다 주력산업 협력수요 증가추세
- 생명과학, 미디어·콘텐츠 등 지식·창조 신산업 분야 진출확대
 - 개선된 ‘투자진출’, ‘인력교류’, ‘기술협력’ 제도·체계 적극활용
 - * ‘녹십자’ 혈액제제 공장건설 (퀘벡 주), ‘레드로버-툰박스’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 대표사례

작성자

◆ 토론토 무역관	이제혁 차장
◆ 밴쿠버 무역관	민준호 과장
◆ 구미팀	권오승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5-056

한-캐나다 FTA 1주년,
對 캐나다 수출 성과분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